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ygkim@kei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현혜정**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hjhyun@dankook.ac.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의 상품 무역액은 현재 27조 2천 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
  - 이러한 증가세는 다자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을 향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함.
  - 전 세계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무역의 약 56%로 자본재나 소비재 교역 비중보다 높음.
    - 이러한 사실은 국제 생산분할 구조의 심화가 교역증대의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함.
  
- 한국의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는 교역액 1조 달러를 달성, 세계 9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함.
  - 교역 대상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50%, 수입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함.
  -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있어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아세안 지역 역시 한·아세안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함.
  - 이런 점에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도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고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 밀접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중국, 일본,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간재 교역에 대한 연구는 협상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수입 중간재의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간재 교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임.
- 중간재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단편적·부분적으로 중간재 교역을 분석한 정도임.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임.
-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입은 전체 수출입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증감하여 2009년 현재 수출액 2,053억 달러, 수입액 2,522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는 상품 전체의 무역수지가 최근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간재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 규모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중간재 무역수지는 2004년 290억 달러 적자에서 2009년 469억 달러 적자로 확대됨.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재 제1 수출국과 제1 수입국은 각각 중국과 일본이며, 수출입 전체를 고려한 제1 중간재 교역 대상국은 중국임.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중국, 일본, ASEAN 5, 홍콩 등 인접국가임.
-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입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금액 기준),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

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함.

- 단, 전기기기 제조업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은 60% 수준, 수입은 7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음.

-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을 국별·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개도국으로부터는 저기술산업의 수입이, 선진국으로부터는 고기술산업의 수입이 중심이 됨.
  - 원재료에 해당하는 광업(96.5%)과 정유 및 정유제품 제조업(90.7%)은 ASEAN 5와 기타 세계로부터, 저기술산업 중 섬유 및 의류 제조업(53.6%)과 목재제품 제조업(67.2%)은 중국과 ASEAN 5로부터, 고기술산업 중 화학제품 제조업(64.6%), 기계장비 제조업(74.4%), 자동차(71.3%), 정밀기기(79.5%)는 미국, 일본, EU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활발함.
- 본 연구는 방대한 산업별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중력모형에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별 집약도와 제도적 수준 변수를 추가하여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을 분석함.
  - 또한 해외투자가 중간재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간 해외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수를 포함함.
- 제3장에서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력모형의 기본변수인 시장규모, 양국 간 거리, 공통언어, 식민지 관계, 접경 등의 변수가 중간재 교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전통적인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 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최종재 교역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들의 계수가 더 커 중간재 교역이 지리적 요인과 비교우위요인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물리적 거리 대신 관세와 운송비용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중간재 교역을 감소시켰으며, 최종재와 비교해 관세는 교역 감소효과가 더 작은 데 반해 운송비용은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 분석에서는 남미와 캐리비안은 제도적 요소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는 비교우위가 보다 중요한 요인임.
- 해외직접투자와 중간재 수출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투자유치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품 등의 중간재를 투자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임.

■ 제3장에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앞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 즉,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수출대상국의 시장크기가 크고 거리가 가깝고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 증대됨.
-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지님으로써 이러한 산업의 중간재와 최종재에서 수출이 보다 활발함.
-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함.
-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거리를 양국간 산업별 관세와 운송비용 추정치로 대체한 경우에도 불변함.
- 또한 OECD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 모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입과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됨.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 중간재의 투입 내역 및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함.

- 첫째, 전체 중간재에서 국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 중간재보다 높지만, 2000~09년 동안 국산 투입계수의 증가보다 수입 투입계수의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함으로써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함.
- 둘째, 투입계수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입계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

입 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산 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2005~09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전기기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제조업에서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넷째,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임.
  - 이와 같이 수입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정유 및 정유제품, 기타운송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전기기기, 전기가스수도 등임.
- 다섯째,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의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이 나타남.
  - 이는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가 수입 중간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제5장)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추가한 CGE 모형을 이용, 중간재 수입을 통해 국내에 발생하게 되는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함.
- 첫째, 주요국에서 발생한 특정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국내 동일산업에 미치는 생산성의 크기는 수입 중간재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유형과 해당국과의 수입관계에 따라 상이함.
  - 흡수효율성이 산업구조 유사성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유형의 경우 해당국과 한국간의 현재 수입의존도에 비례하여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커지는 반면, 흡수효율성이 흡수능력(인적자본)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국과의 수입량에 의해 파급되는 생산성의 크기가 결정됨.
  - 따라서 산업구조가 유사해야 활용도가 높은 기술은 일본과 같이 현재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로부터 개발된 기술일수록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고, 한국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응용·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신기술은 FTA를 통하여 수입량 증가 가능성이 높은 EU 같은 국가에서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 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함.
  - 즉,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전체 중간재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보다 수입 중간재를 많이 투입하는 산업에서 더 큰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함.
  - 이는 현재의 수입비중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한국이 특정산업에서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재 수입선을 다변화하여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FTA발효로 인해 EU나 미국으로부터 중간재의 수입이 보다 증가되면 일본의 중간재에서 발생한 기술진보보다 EU나 미국에서 발생한 중간재 기술진보가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 향상에 더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실질 GDP의 효과는 주요국의 기술진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화학산업에서 발생한 기술진보의 경우 국내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0.07~0.15%와 0.05~0.1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주요국의 전자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국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약간 부정적임.
  - 화학이나 기계는 전자와 자동차에 비해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생산성이라도 실질 GDP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키며, 산업연관효과가 낮은 산업에서 발생한 생산성은 오히려 실질 GDP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는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에서 생산성 증대가 발생하면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여러 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산업연관효과가 제한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은 해당 산업의 생산비용만 크게 낮추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임.

- 넷째, 후생효과도 실질 GDP 변화와 유사하게, 주요국의 기술진보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산업의 연관효과가 클수록 긍정적인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현상은 산업연관효과가 작은 산업에서의 생산성 증대는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를 초래하여 후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에서는 기술진보로 인한 후생증대가 교역조건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3. 정책 제언

#### 1) 중간재 수입의존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EU로부터 수입되는 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기기기 제조업 중간재를 국산 중간재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중간재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그 이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보다 심화된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문제가 존재함.
  - 중간재의 구조적인 높은 수입의존도와 이의 증가 양상은 수출로부터 거두는 이익 중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무역수지 개선을 어렵게 만들.
- 중국, ASEAN 5 등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은 국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우선 핵심 부품 및 소재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국내의 기술개발이 곤란한 중간재는 적극적인 FDI 유치 활동을 통해 여기에서 파



생되는 기술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도모하도록 함.

■ 중간재로서 사용되는 서비스 즉 생산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서 수입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정도가 높고, 이와 같은 현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서비스의 다양화·차별화·전문화가 심화될수록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의 중간재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국산 서비스의 중간투입은 변화가 없는 반면, 수입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서비스 발전이 미흡하여 산업의 생산에서 필요로 되는 서비스를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서비스수지는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
- 앞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으면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대외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악화는 물론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노력 못지않게 산업 전반에 중간재로 많이 투입되는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등의 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서비스분야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는 관련 선진 기술, 노하우 등이 체화된 서비스 전문가이므로, 이들 인력을 육성하는 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2) 중간재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은 자본과 중·상 기술(middle-high skill) 부족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중간재의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함.**

- 풍부한 부존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산업에서 수출이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헉서-올린 이론이 중간재 교역에서도 실증적으로 뒷받침됨.
- 한국은 아시아 전 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적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중·상 기술(middle-high skill) 부존도가 풍부하기 때문임.
- 이런 측면에서 자본 및 기술, 특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적 수준, 특히 계약이행에서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 내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를 위한 중간재의 기술과 복잡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보안이 요구되는 재화일수록 관계특정성이 높고 표준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함.
-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장의 거래환경이 투명하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높을수록 관계특정적인 중간재 사용 비중이 높은 재화의 생산이 보다 활발함.
- 한국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재화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생산기지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강화해야 하는 과도기에 있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수준, 특히 계약이행에 있어서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 FTA 협상에 앞서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은 미국 및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중간재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일본 등과는 아직 협상 중에 있거나 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임.
  - 따라서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 앞서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이 필요함.
  
- 향후 계획 중인 FTA 협상이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수준 높은 양허를 이끌어 내는 협상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이 교역상대국과 맺은 RTA(지역무역협정)는 최종재 교역보다 오히려 중간재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전 세계 데이터 분석에서도 RTA는 중간재 교역과 최종재 교역 모두를 증대시키지만 중간재 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즉, RTA는 최종재 교역 증대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뿐 아니라 중간재 교역 증대를 통한 생산증대와 기술습득을 통한 지식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FTA 협상이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수준 높은 양허를 달성하도록 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생산구조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인적자원만 갖춰져 있으면 활용가능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한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고려해야 함.
  -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의 흡수효율성이 인적자본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국과의 수입량에 의해 파급되는 생산성의 크기가 결정됨.
  - 따라서 생산구조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인적자원만 갖춰져 있으면

활용가능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한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해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최종재의 수입의존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현재의 생산분할 구조를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첫걸음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경제통합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 구성으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이 보다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현재의 생산분할 구조를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간재 교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은 효과적이며 부담감이 덜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재 교역은 최종재 교역보다 무역장벽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최종재 교역의 무역장벽 완화는 국내생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국내 반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중간재 교역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분할로

인해 오히려 국내생산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 감축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함.

- 따라서 중간재 교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은 효과적이며 부담감이 덜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중간재 교역의 무역장벽 감축은 생산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중간재 교역을 통한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의 개선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장벽 감축정책을 도입한다면 보다 큰 거시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 수립 필요

-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재에 미치는 영향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큼.
- 따라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키고 생산분할 구조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각국의 투자유인정책 중에서 중간재 교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 또한 고기술산업 중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크지 않은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 전기기기 제조업, 정밀기기에 대한 선진국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간재 수출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는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학습효과(learning by exporting)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고기술산업 중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크지 않은 기계장

비 제조업, 자동차, 전기기기 제조업, 정밀기기에 대한 선진국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무역협정에서 서비스 개방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과 달리 산업구조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했을 경우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도 서비스 중간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